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2권 제1호(통권 제85호, 2011 · 봄호)

청소년 매체이용상 비행에서의 원인요소와 통제요소의 통합적 검증 : 현실, 인터넷, 휴대전화 비행의 비교*

이 성 식**

국 | 문 | 초 | 록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에의 원인요소와 통제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 비행 등 여러 매체이용상의 비행에 적용해 보고 그 차이를 살펴보려는 것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서 원인요소는 낮은 자기통제력, 부정적 감정,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제요소는 개인도덕신념, 공식처벌인식, 주위 사람와의 유대를 다루고 이들의 독립적 작용과 아울러 원인요소와 통제요소의 상호작용효과를 세 매체별로 살펴 본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세 매체상의 비행 모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주요 원인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요소로 주위 사람들의 유대는 현실비행에서, 공식처벌은 휴대전화비행에서, 그리고 개인도덕신념은 모든 매체의 비행에서 중요한 요인이었다. 원인요소와 통제요소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물론 세 매체별로 다소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개인도덕신념에 의해 통제되고, 반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은 공식처벌이나 주위 사람과의 유대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행연구에서 원인과 통제요소의 통합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울러 매체별로도 그 원인의 작용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상이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주제어 : 청소년비행, 통합모델, 원인요소, 통제요소, 이용매체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385)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Ⅰ. 서 론

청소년비행은 현실 오프라인을 넘어 최근 컴퓨터 인터넷과 더 나아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비행에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일상 이용매체는 다변화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매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행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앞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증가로 새로운 매체융합적 비행패턴도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현실 오프라인에서의 비행이외에 인터넷 사이버비행 그리고 휴대전화상의 비행의 원인을 비교하면서 다루려고 한다.

이 연구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청소년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원인요소와 통제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론적 모델을 구성하려고 한다. 기존의 비행이론들이나 경험연구는 청소년비행자의 특성이나 동기와 같은 원인요소나 혹은 통제론적 시각의 기반하에 통제요소들에 각기 주목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비행을 보다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인요소와 통제요소가 모두 필요충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비행의 원인과 동기가 높은 청소년들이 통제요소마저 없을 때 비행의 가능성은 높은 것이며, 만약 통제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비행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원인요소와 통제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보고자 하는데, 원인요소이외에 통제요소를 함께 다루는 것은 비행을 어떻게 통제할까를 고려한다는 면에서 청소년비행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잇점도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청소년비행의 통합모델을 현실 오프라인에 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사이버비행, 그리고 휴대전화비행 등 여러 이용매체상의 비행에 적용해 보고 과연 그 원인요소와 통제요소가 이용매체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전 비행이론과 연구들로부터 제시된 원인과 통제요소들은 모든 비행에 적용가능할 것이라는 일반이론을 가정하고 있지만 이용매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상이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매체상의 대책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의 현실, 인터넷, 휴대전화 비행의 설명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 이용매체별로 어떠한 원인요소와 통제요소가 중요한 설명요인이 될지를 알아보고 가설을 세운 후 그 가설들을 경험연구를 통해 비교 검토해 보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이용매체별 해결책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논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된다.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비행의 통합적 연구모델의 구성

청소년비행과 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큰 줄기로 실증주의와 고전주의 학파가 있지만 이 두 학파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비행을 설명하고자 했다. 전자는 누가 왜 비행을 저지르는가에 주목한 반면, 후자는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 비행이 발생하는가에 주목했다. 전자가 비행의 원인과 동기에 주목한 비행자이론이라면, 후자는 비행발생의 기회와 상황측면에 주목한 비행발생이론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비행의 주요 이론이었던 긴장이론이나 하위문화이론,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 등이 전자에 있어 대표적 이론이라고 한다면, 사회통제이론(혹자는 이 이론을 전자에 포함하기도 하지만)이나 억제이론, 그리고 범죄기회이론 등은 후자에 대표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갈래의 이론 속에 주목할만한 통합이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 논의의 하나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제시한 일반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어려서 형성된 개인의 안정된 성향으로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이나 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면서도 또한 그러한 개인성향뿐만 아니라 비행기회의 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소위 실증주의와 고전주의 두 학파의 입장을 통합한 이론을 제시했다. 또한 이후 Agnew(1992)와 같은 학자는 긴장이론에 토대를 두면서도 비행의 원인이자 동기로서 일상긴장이외에 여러 다른 이론들에서의 설명요인들이 필요충분적 조건으로 모두 필요하다는 일반긴장이론을 제시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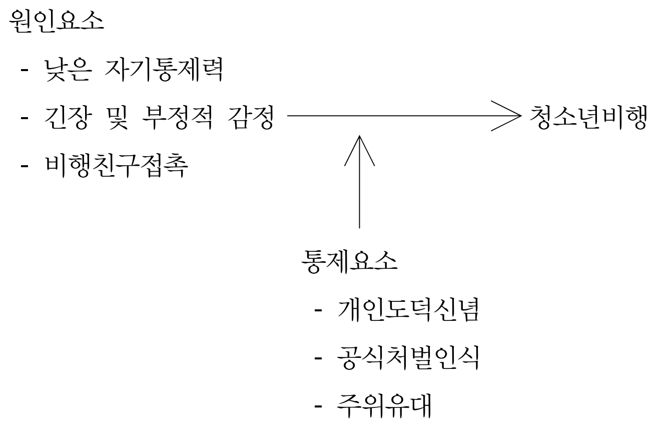
로써 통합적인 이론을 시도하였다.

그동안 몇몇의 연구에서 통합이론적 논의를 시도해 왔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면서도 또 다른 통합론적 시도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 비행이론을 크게 원인론적 이론과 통제론적 이론으로 구분한 후 비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행의 원인이 존재하고 동시에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통제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개인성향원인과 기회상황요인을 필요충분조건으로 제시한 일반이론의 주장(Gottfreddon and Hirschi, 1990; Hay and Forrest, 2008)과 크게 다른 것이 없으며 다만 그 원인요소로 개인성향이외에 환경요인을 포함한 다른 주요 원인들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좀 더 보완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긴장이론에서의 일상긴장이나 부정적 감정들도 비행의 주요 원인이며(Agnew, 1992; Piquero and Sealock, 2000), 아울러 기존 연구들에서는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서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Warr and Stafford, 1991)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원인요소로 추가하고자 한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주요 연구들에 의거하여 비행의 원인요소로 개인내적 성향으로서 낮은 자기통제력(일반이론)이외에 사회환경적 요인으로서 일상긴장과 부정적 감정(긴장이론), 그리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아울러 통제론적 시각의 이론들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통제요소들을 제시하기로 하는데, 원인요소가 있어도 통제요소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요소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가능성은 낮지만, 원인요소가 존재하고 통제요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행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통제요소로는 개인내적 통제요소로 개인도덕신념 혹은 태도(인지이론 혹은 사회통제이론), 그리고 외적 통제요소로는 공식처벌의 외적 통제(억제이론)와 주위 사람과의 유대와 같은 비공식 통제(사회통제이론)를 제시하기로 한다. 즉 비행의 원인요소가 존재하더라도 개인의 도덕신념, 공식처벌, 주위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강할 때에는 원인의 작용을 완충할 수 있어 그러한 청소년의 비행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통제요소들이 낮은 청소년에 한하여 비행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본래 통제론적 시각의 이론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동기가 누구나에게 주어

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인요소와 상관없이 통제요소에만 주목했지만 원인이 누구나에게가 아니라 일부 청소년들에게 더 높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원인과 통제요소의 통합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비행설명의 통합론적 시도로 원인요소와 통제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비행설명으로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언급하고 이 두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이전 주장(Howell, 2003)도 연관이 있다. 본 연구의 통합론적 연구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청소년비행의 통합론적 연구모델

2. 세 이용매체별 원인요소와 통제요소의 영향력: 기존 논의

가. 세 매체별 원인요소

현실 오프라인에서의 비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낮은 자기통제력은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비행의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의 하나로 평가된다 (Pratt and Cullen, 2000; 민수홍, 2006). 물론 일반이론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고 보면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부정한 점에서는 비판을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통제력이 낮은 충동적 청소년들이 비행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은 많은 연구들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에 비하면 그 영향력은 낮지만 긴장이론의 주장과 같이 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나 갈등, 학업의 좌절과 부적응,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른다는 주장도 지지를 받고 있다(Agnew, 1992; Piquero and Sealock, 2000). 아울러 비행친구와 접촉하는 청소년이 비행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국내외적으로 크게 지지되고 있다(Warr and Stafford, 1991). 비행친구와 접촉하면 비행을 학습하고 용인하게 됨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나 일상긴장을 겪는 청소년들도 결국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됨으로 해서 비행을 저지른다는 주장도 제기되듯이 가장 강력한 원인의 하나로 평가받는다(Elliott et al., 1985; Simmons et al., 1998; Mazarolle et al., 2000).

일반이론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은 모든 비행에 잘 적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듯이, 일반이론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하였던 기존 연구들을 보면 낮은 자기통제력의 충동적 아이들은 인터넷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경님, 하연미, 2004; 민수홍, 2005; 이성식, 2006a). 오히려 낮은 자기통제력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큰 설명력을 지닐 것이라고 기대되기도 하는데, 일반이론에 따르면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행기회가 용이한 상황에서 더 크게 작동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온라인공간은 큰 노력없이 한 번의 클릭만으로 비행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고, 비대면의 익명의 상황에서 발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비행기회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인터넷비행에 더 잘 작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 적용해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이성식, 2006a) 낮은 자기통제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일상긴장요인들이 현실에서도 비행을 잘 설명하듯이 마찬가지로 사이버비행에도 잘 적용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성식, 2004). 오히려 일상긴장의 영향은 오프라인 현실보다 온라인에서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현실에서는 긴장과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해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과 상대의 반격이나 상황여건, 또 발각의 염려 등으로 그것이 곧바로 비행으로 표출되긴 어렵지만, 온라인에서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허용되는 편이고, 사회적 실재감이 낮고 익명 혹은 비대면상황이어서 큰 제약없이 긴장과 부정적 감정을 쉽게 비행으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성식의 연구(2006a)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에 비해 일상긴장의 영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우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기존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원인요소였지만 사이버비행에서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현실 오프라인에서는 단독비행보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비행이 많지만, 온라인에서는 컴퓨터에 혼자 앉아 비행을 한다는 면에서 친구로부터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주위의 압력이나 영향보다는 개인의 소신이나 평소 생각,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 쉬운데(Joinson, 2003), 그러한 면에서 온라인 인터넷비행에서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낮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이성식의 연구(2006a)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비행친구의 영향력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그 영향력이 다소 미약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같이 볼 때 인터넷매체의 익명 및 비대면성, 그리고 비행기회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실과 비교해서 인터넷비행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일상긴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비행친구의 작용은 낮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비행과 달리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황에서의 비행의 경우는 어떠한가? 휴대전화는 휴대이동성, 은밀성, 동시연결성 등으로 특징된다(이재현, 2004; 성동규 외, 2007). 휴대전화비행은 온라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매체를 매개로 하며, 또 사적으로 은밀하게 사용할 수 있고, 주위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비대면의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현실 오프라인의 경우와는 다르고 인터넷과 같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휴대성과 이동성으로 인해 그것의 사용공간이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서 보면 그 공간이 가상공간이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현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휴대전화의 경우는 현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이성식과 김현준의 휴대전화비행 연구(2009)에서는 비록 긴장요인들의 영향력은 미약했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이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휴대전화비행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긴장의 휴대전화비행으로의 표출은 인터넷에서처럼 쉽지는 않지만 비행친구의 영향은 기존 인터넷비행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크다는 복합된 결과를 제시한다.

나. 세 매체별 통제요소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통제요소로 개인 내적 도덕적 신념이나 윤리의식은 Hirschi(1969)가 사회통제이론에서 사회유대의 네 요소 중 하나로 강조하여 다루었듯이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도덕적 태도를 내면화하여 비행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비행가능성이 낮지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도덕적 신념이나 윤리의식의 중요성은 특히 오프라인에서보다도 온라인 사이버공간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어 왔는데, 현실에서는 주위 압력과 상황 때문에 평소의 생각과 달리 행동하는 경향도 높듯이(비행이 옳지 않은 것은 알지만 친구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가담하는 경우처럼) 도덕적 신념이나 윤리의식의 작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이버공간에서는 주위 환경의 영향보다는 사적 자아의식이 높아 평소의 소신과 태도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Joinson, 2003). 이처럼 현실비행의 경우보다도 윤리의식이 높은 청소년은 인터넷비행을 덜 저지르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성식(2006b)은 사이버언어폭력의 연구에서 개인의 내적 태도는 가장 강력한 설명요인이자 통제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공식기관의 처벌에 의한 통제의 영향력은 어떨까? 억제이론에서는 공식기관의 처벌이 확실하고 엄중할 때 그것은 비행이나 범죄의 통제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Gibbs, 1975). 하지만 기존 현실기반의 연구에서 공식처벌의 비행통제력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즉 청소년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옳지 않거나 또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와 유대 때문이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것이다(Paternoster et al., 1983). 그러나 현실의 경우와 달리 사이버비행의 경우에서는 공식처벌을 조금만 강화할 경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식처벌의 억제 및 통제효과는 일반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비행가능성이 높은 잠정적 비행대상자에게서 그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Pogarsky, 2002), 사이버비행의 경우가 오프라인보다는 더 용인되고 또 비행기회가 용이하여, 잠정적 비행대상자가 더 많다고 한다면, 현실에서 그 영향력이 미비했던 것과는 달리 공식처벌의 설명력은 어느 정도 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이버언어폭력의 연구에서 이성식(2006b)은

처벌의 억제효과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p<.05$수준에서 작동한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이후 연구(이성식, 2008)에서는 비록 윤리의식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공식처벌은 사이버비행의 의도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현실에서는 그동안 사회통제이론에서도 강조되어 왔듯이 주위 사람들과의 애착과 유대가 주요 통제요인이 된다는 것이 제시되어 왔다. 즉 법을 위반하려다가도 부모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는 생각에 비행을 그만두며(Hirschi, 1969), 부모이외에 주위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의 수치심이 예상되어 비행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고, 아울러 이웃들의 신뢰와 비공식통제가 비행의 통제요소로 작동하기도 한다(Sampson et al., 1997). 하지만 사이버 온라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사이버공간에 있게 되면 그동안 만큼은 현실과 다른 공간에 있다는 인식이 있어 현실에서의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위 사람과의 사회유대의 영향력은 현실의 경우는 몰라도 온라인 인터넷의 경우는 다소 약할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는 그대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개인의 신념과 윤리의식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높다.

휴대전화비행의 경우는 그것이 현실과 인터넷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개인도덕신념, 공식처벌, 그리고 주위 사람의 비공식 통제력의 영향도 그 중간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성식과 김현준의 연구(2009)에서는 공식처벌의 영향력은 다루지 않았지만, 다른 비행원인요소와 함께 개인태도와 부모의 애착과 같은 유대요소의 영향력을 다루었는데, 개인태도와 의식이 온라인 인터넷비행의 경우 매우 강했던 연구결과와는 달리, 개인의 태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부모와의 애착의 영향력은 이전 온라인 비행연구에서는 매우 미약했던 것(이성식, 2006a)과는 달리 $p<.05$수준에서 비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는 휴대전화비행의 경우 현실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인터넷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과 인터넷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Ⅲ. 연구가설과 방법

1. 연구가설

이 연구는 앞서 제시한 청소년비행에 대한 통합모델을 근거로 그것을 현실,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 비행에 각각 적용해 보는 것을 시도한다. 청소년비행 통합모델은 원인요소와 통제요소로 구분되며, 원인요소는 높고 통제요소가 낮을 때 비행가능성은 높지만, 통제요소가 강할 때는 그것이 원인요소의 작용을 완충하는 통제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며, 이처럼 원인요소와 통제요소가 통합적으로 함께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인요소로 낮은 자기통제력, 부정적 감정, 그리고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 세 요인을 사용하려고 하며, 통제요소로는 개인도덕신념, 공식처벌의 인식,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 등 세 요인을 사용하기로 한다. 우선 이러한 세 개씩의 원인요소와 통제요소들의 독립효과를 현실, 인터넷, 휴대전화 비행에 각각 적용해 보려는 것이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이며, 앞서 논의에서처럼 각각의 요소들의 영향이 세 이용매체상의 비행에 있어서 각각 상이할 것이라고 예측해 본다.

다음 가설들은 각각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앞서 논의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원인요소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은 모든 비행에서 영향력이 클 것이지만 그 중 인터넷비행에서 더욱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반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현실비행에서 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측한다. 기존 연구에 근거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 감정의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현실보다는 인터넷비행에서 그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본다. 한편 통제요소에서 보면 개인도덕신념은 인터넷비행에서, 주위 사람과의 유대관계는 현실비행에서 그 작용이 클 것이며, 공식처벌의 영향력은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인터넷비행에서 상대적으로 더 작동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편 휴대전화비행의 경우 각각의 요소들의 영향력은 현실과 인터넷비행의 경우의 중간 정도일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 1: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을 더 할 것이며, 낮은 자기통제력은 모든 매체에서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 영향은 인터넷비행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 2 : 부정적 감정이 클수록 비행을 더 할 것이며,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비행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 3 : 비행친구와 접촉할수록 비행을 더 할 것이며, 그 영향은 현실비행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 4 : 개인도덕신념이 높을수록 비행은 덜 할 것이며, 그 영향은 인터넷비행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 5 : 공식처벌인식은 높을수록 비행은 덜 할 것이며,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비행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 6 : 주위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비행은 덜 할 것이며, 그 영향은 현실비행에서 더 클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의 독립효과에 주로 주목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들의 각각의 독립효과이외에도 원인요소와 통제요소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다룸으로써 본 연구의 통합모델을 검증해 보기로 한다. 앞서 요인들의 세 이용매체별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낮은 자기통제력은 앞서 가설 1에서 보듯이 인터넷비행에서 주요 원인요소이고, 현실비행에서는 가설 3에서 보듯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주요 원인요소이며, 통제요소로 개인도덕신념은 가설 4에서처럼 인터넷비행에서, 그리고 주위 사람과의 유대는 가설 6에서와 같이 현실비행에서 주요 통제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여러 상호작용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가설 7 : 낮은 자기통제력과 개인도덕신념은 인터넷비행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8 : 비행친구접촉과 주위 사람과의 유대는 현실비행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다.

2. 연구대상

이 연구를 위해 2008년도 서울시 재학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청소년비행의 주 연구대상 연령층은 과거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인터넷이용이나 휴대전화의 이용의 경우도 중학생이 주 이용층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전국단위보다는 조사비용을 고려해 서울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조사를 위해 서울시 중학교 목록에서 무작위로 일곱 개의 중학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학교별로 1,2,3학년의 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학급생 전원을 조사하도록 하여 학교별로 100여명씩을 조사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718명의 설문이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715명이 최종 대상자가 된다.

3. 주요 변인의 측정

종속변인으로 다룰 현실, 인터넷, 휴대전화 비행을 위해 각각 열 개의 비행항목에서 비행경험 횟수를 질문하였는데, 현실비행의 경우는 흡연, 음주, 미성년불가업소출입, 절도, 강도, 폭행, 성희롱, 강간, 성관계, 약물 등 열 개 항목의 경험을, 인터넷비행의 경우는 욕설, 허위사실유포, 성희롱, 스토킹, 음란물, 아이디/주민번호도용, 해킹/바이러스/스팸, 사기/절도, 저작권침해 등을, 휴대전화 비행의 경우도 인터넷비행의 항목과 일치하는 열 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열 개 비행문항에서의 횟수는 ‘없다’, ‘1회’, ‘2-3회’, ‘4-10회’, ‘11회 이상’으로 다시 나누고 0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고, 최종적으로 열 개씩의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비행은 가벼운 비행에서부터 심각한 비행이 있어 그것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여러 유형의 비행경험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문항들을 합산하도록 했다. 이때 각 문항에서 원래대로의 횟수를 값으로 하여 합산할 경우 전체비행에서 빈도가 많은 일부 비행문항의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또 각 문항에서 ‘없다’와 ‘있다’만을 고려할 경우 그 합산값은 비행의 빈도보다는 다양성을 위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기 0점부터 4점까지로

나누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독립변인으로 원인요소로서 낮은 자기통제력은 기존의 연구에 의거하여(Grasmick et al., 1993), 충동성, 위험추구성, 단순작업추구성, 활동성, 이기성, 화기질 등 여섯 특성에 대해 두 문항씩의 질문을 하였는데, 예컨대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와 같은 총 열 두개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했다(alpha=.816).

부정적 감정은 화, 우울, 불안감 등을 측정하는 총 열 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나는 우울하다” 등의 질문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926).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이용매체별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 현실, 인터넷, 휴대전화 비행을 저지른 친구가 각각 몇 명인지를 질문하고 매체별로 한 문항씩 각각 사용하기로 한다.

통제요소로 개인도덕신념은 현실, 인터넷, 휴대전화 비행에 대해 얼마나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각각 한 문항씩을 묻고 “전혀 나쁘지 않다”에서 “매우 나쁘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공식처벌의 인식은 처벌의 확실성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 인터넷, 휴대전화 비행에 대해 각각 발각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관계의 비공식 통제수준을 위해서는 현실, 인터넷, 휴대전화 비행 각각에 대해 “비행을 할 경우 주위 사람들이 안다면 실망하실 것이다”, “비행을 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다”, “비행을 한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안다면 나는 창피할 것이다”등 세 문항씩을 질문하도록 하였다(alpha 현실=.953; 인터넷=.955; 휴대전화=.923).

아울러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인으로 성은 여자(=0)와 남자(=1)를, 연령은 태어난 연도를 묻고 연령으로 재부호화를 하였고, 계층변인으로 가족의 수입은 100만원 이하에서부터 101-200만원, 201-300만원 그리고 901만원 이상에 이르는 열 개의 응답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Ⅳ. 분석결과

<표 1>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사회배경적 특성을 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364명으로 50.9%를, 여학생이 336명으로 47.0%를 차지해 성별분포는 남자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2세에서 16세까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14세가 257명(35.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15세로 196명(27.4%), 13세가 191명(26.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계층적 변인과 관련하여 한 달 평균 가족수입을 살펴보면 가족 월수입이 201만원에서 300만원 이하가 164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대가 124명(17.3%), 400만원대가 101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명	%
성		
남성	364	50.9
여성	336	47.0
무응답	15	2.1
연령		
12세	58	8.1
13세	191	26.7
14세	257	35.9
15세	196	27.4
16세	13	1.8
가족수입		
100만이하	32	4.2
101-200만	89	12.8
201-300만	164	23.0
301-400만	124	17.8
401-500만	101	14.6
501-600만	34	4.8
601-700만	21	3.4
701-800만	9	1.4
801-900만	9	1.4
901만이상	37	5.3
무응답	96	13.4
총	715	100.0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주요 원인요소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12-60범위에서 평균값이 33.332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소 일상생활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은 10-50범위에서 27.378로 중간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현실비행, 인터넷비행, 휴대전화비행을 저지른 비행친구의 수로 알아 본 결과 인터넷 비행친구의 수가 0에서 100까지의 범위로 가장 컸고 평균값도 3.341로 가장 높았다. 현실의 비행친구수는 1.342로 나타났고 휴대전화 비행친구의 수는 .71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범위
낮은자기통제력	33.332	8.907	12-60
부정적감정	27.378	9.642	10-50
비행친구접촉			
현실	1.342	4.076	0-50
인터넷	3.341	9.072	0-100
휴대전화	.710	2.031	0-22
개인도덕신념			
현실	4.307	.899	1-5
인터넷	4.106	1.016	1-5
휴대전화	3.992	1.203	1-5
공식처벌인식			
현실	3.933	1.151	1-5
인터넷	3.728	1.211	1-5
휴대전화	3.492	1.307	1-5
주위유대			
현실	11.581	3.511	3-15
인터넷	11.017	3.650	3-15
휴대전화	10.974	3.859	3-15
비행			
현실	1.576	2.756	0-21
인터넷	2.882	3.446	0-22
휴대전화	1.679	2.661	0-17

통제요소로는 우선 개인도덕신념으로 현실, 인터넷, 휴대전화 비행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1-5범위에서 현실비행에 대한 태도가 4.307로 대부분이 그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이 인터넷비행에 대한 태도가 4.106, 그리고 휴대전화비행에 대한 태도가 3.992로 상대적으로 휴대전화비행을 더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처벌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현실비행의 공식처벌 가능성은 1-5범위에서 3.93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터넷비행이 3.728, 휴대전화비행이 3.492로 제시되었다. 또한 비행의 통제요소로 주위 사람과의 유대(비행으로 결과될 주위 사람과의 유대손실)는 현실비행의 경우 3-15범위에서 11.5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터넷비행이 11.017, 휴대전화의 경우는 10.974로, 현실비행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비공식통제가 가장 높고,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다룰 청소년비행에서 현실비행은 0-21점의 범위에서 평균값이 1.576으로 가장 낮았고, 인터넷비행은 0-22범위에서 2.882, 그리고 휴대전화비행은 0-17범위에서 평균값이 1.67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이버 인터넷비행의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원인요소와 세 통제요소의 현실,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 비행에 대한 영향력을 제시하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먼저 현실비행에서의 결과를 보면 원인요소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p<.001수준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그 중에서도 베타값을 비교해 볼 때 비행친구와의 접촉(β=.362)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나타냈다. 즉 비행친구가 많은 아이들이 현실비행을 많이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또 다른 원인요소로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제요소로는 개인의 도덕신념이 p<.01수준에서 부(-)적으로 통제작용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아울러 주위 사람과의 유대에 의한 통제도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식처벌의 통제작용은 기존 연구결과들에서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남성이 p<.05수준에서, 그리고 가족수입이 높은 아이들이 p<.05수준에서 더 비행을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두 번째로 인터넷비행에서의 결과를 보면 원인요소로는 앞서 현실비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각각 $p<.001$수준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그 중에서도 베타값에서 보듯이 비행친구와의 접촉($\beta=.230$)보다는 낮은 자기통제력($\beta=.240$)이 다소 더 중요한 원인임을 나타냈다. 이는 현실비행의 경우 낮은 자기통제력보다는 비행친구접촉이 더 중요했다는 결과와는 다소 대조되는 것이며 본 연구의 예측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앞서 현실비행에서의 결과와 같이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제요소로는 개인의 도덕신념이 $p<.05$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한 통제작용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하지만 공식처벌과 주위 사람과의 유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공식처벌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과의 비공식통제의 영향력은 낮을 것이라는 예측과 인터넷비행에서는 개인 내적 신념이나 윤리의식이 통제요소로 중요할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한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남성이 $p<.001$수준에서 더 비행을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휴대전화비행의 경우를 보면 현실 그리고 인터넷비행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p<.001$수준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그 중에서도 비행친구($\beta=.266$)가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나타냈다.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은 현실과 인터넷비행의 경우와 같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제요소의 경우도 현실 및 인터넷비행의 경우와 같이 개인의 도덕신념이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개인태도가 모든 비행에서 중요한 통제요소가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아울러 주위 사람들의 통제작용은 현실비행에서 유의미했던 것과는 달리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비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식처벌의 통제작용은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실 및 인터넷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휴대전화비행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원인 및 통제요소의 세 매체상의 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현실비행		인터넷비행		휴대전화비행	
독립변수	b	β	b	β	b	β
남성	.476*	.082	1.105***	.160	.133	.024
연령	-.158	-.054	.178	.051	.085	.030
가족수입	.124*	.092	.053	.032	-.031	-.025
낮은자기통제력	.064***	.195	.094***	.240	.056***	.184
부정적감정	.023	.077	.008	.023	-.003	-.009
비행친구접촉	.249***	.362	.082***	.230	.352***	.266
개인도덕신념	-.404**	-.129	-.343*	-.100	-.232*	-.104
공식처벌인식	.130	.051	-.219	-.075	-.204*	-.099
주위유대	-.083*	-.103	-.063	-.067	.010	.015
R제곱	.294		.201		.131	
F값	23.496***		13.884***		8.516***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원인요소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접촉은 현실, 인터넷, 휴대전화 비행에서 모두 중요한 원인요소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낮은 자기통제력은 인터넷비행에서(가설 1), 그리고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현실에서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가설 3) 본 연구의 가설을 어느 정도 지지했다. 휴대전화비행의 경우는 현실과 같이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다소 더 컸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와 같이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 비교해 볼 때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은 낮았다. 그리고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인터넷비행에서 클 것이라는 가설은(가설 2) 지지되지 않았다. 한편 통제요소의 경우는 본 연구의 예측대로 주위사람들의 유대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비행에서보다 현실비행에서 중요한 통제요소이었다(가설 6). 하지만 개인신념과 태도가 인터넷비행에서 더 중요할 것이라는 예측(가설 4)과 달리 개인도덕신념 모든 매체에서 중요한 통제요소이었으며, 아울러 공식처벌은 현실보다는 인터넷비행에서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가설 5), 현실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인터넷비행에서는 p<.10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어느 정도 가설과 일치했지만 오히려 휴대전화비행에서 p<.05수

준에서 유의미하여 중요한 통제요소인 것을 제시했다.

한편 <표 4>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통합론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요소와 통제요소의 상호작용효과의 영향력에 관한 결과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앞서 <표 3>에서 원인요소로 중요하게 나타났던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를 중심으로 어떠한 통제요소가 그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현실비행의 경우 그 결과를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낮은 자기통제력과 개인도덕신념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제시했고, 아울러 비행친구접촉은 공식처벌과, 그리고 주위 사람과의 유대와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들이 개인도덕신념을 갖출 경우, 그리고 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은 공식처벌을 인지하거나 주위와 유대가 클 경우 비행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한다.

인터넷비행의 경우는 현실비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자기통제력과 개인도덕신념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제시했고, 아울러 비행친구접촉은 공식처벌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어,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들이 개인도덕신념을 갖출 경우, 그리고 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은 공식처벌을 인지할 경우 비행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개인도덕신념의 상호작용이 인터넷비행에서 클 것이라는 예측(가설 7)과 달리 현실과 인터넷 모두에서 나타난 것이며, 본 연구의 예측대로(가설 8) 비행친구의 작용은 현실에서는 주위의 유대가 통제를 하지만 그 관계는 인터넷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는 현실 및 인터넷비행 모두에서 비행친구를 사귈 경우에 공식처벌은 주요 통제작용을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비행의 경우는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주위의 유대의 상호작용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8에서와 같이 현실의 경우이외에 휴대전화비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주위 유대가 통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 외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 영향력은 약했는데, 즉 낮은 자기통제력은 독립적인 효과만을 가질 뿐이며 그것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음을 제시하며, 마찬가지로 비행친구와의 접촉도

개인도덕신념이나 공식처벌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고,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에 의해서만 통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표 4〉 원인 및 통제요소의 상호작용효과의 세 매체상의 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현실비행		인터넷비행		휴대전화비행	
독립변수	b	β	b	β	b	β
남성	.419	.072	1.074***	.157	.102	.019
연령	-.114	-.039	.103	.030	.109	.038
가족수입	.094	.070	.058	.036	-.018	-.014
낮은자기통제력	.061***	.187	.085***	.223	.055***	.181
부정적감정	.016	.054	.018	.051	.003	.010
비행친구접촉	.236***	.343	.110***	.310	.408***	.308
개인도덕신념	-.500***	-.160	-.475**	-.140	-.266*	-.120
공식처벌인식	.105	.041	-.201	-.070	-.183*	-.088
주위유대	-.093**	-.116	-.071	-.076	.003	.005
낮자통*도덕신념	-.060***	-.193	-.052***	-.160	-.004	-.017
낮자통*공식처벌	.016	.050	.007	.021	-.015	-.058
낮자통*주위유대	.010	.095	-.001	-.004	-.005	-.020
비친구*도덕신념	-.017	-.049	-.002	-.011	-.056	-.039
비친구*공식처벌	-.121***	-.167	-.087***	-.256	.061	.056
비친구*주위유대	-.031**	-.107	.006	.071	-.043*	-.097
R제곱	.356		.279		.147	
F값	18.539***		12.544***		5.787*	

*=p<.05; **=p<.01; ***=p<.001

V. 결 론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에 대한 통합모델을 구성함에 있어 원인요소와 통제요소들을 함께 고려하고 아울러 이 모델을 오프라인 현실에서의 비행 뿐만 아니라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 비행 등 여러 매체이용상의 비행에 적용해 보고 그 차이를 살펴보려는 것에 주목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통합모델이 어느 정도 적합함을 제시했다. 즉 원인요소와 통제요소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인요소의 비행에 있어서의 작용은 통제요소의 존재로 인하여 영향력이 있거나 혹은 낮아지는 조건적 효과를 가지며, 결국 원인요소와 통제요소 모두가 함께 작동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원인과 통제요소의 독립적 작용이나 통합적 작용이 세 매체별로 다소 상이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우선 원인요소로는 세 매체상의 비행 모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실비행과 휴대전화비행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보다 비행친구의 영향이 더 컸으나 인터넷비행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이었다. 통제요소로는 주위 사람들의 유대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비행에서보다 현실비행에서 중요한 통제요소이었고, 공식처벌은 휴대전화비행에서, 그리고 개인도덕신념은 모든 매체의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통제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대한 사전 예방적 대처와 또한 아울러 청소년들에 대한 윤리의식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외에 어느 정도 세 매체별로 서로 다른 요인의 작용을 볼 때 차별적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실비행에서는 주위 사람의 유대가, 그리고 휴대전화비행은 강력한 법적 조치가 대응책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원인요소와 통제요소의 통합적 작용을 보면 물론 세 매체별로 다소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개인태도에 의해 통제되고, 반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은 공식처벌이나 주위 사람과의 유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제시한다. 즉 개인 원인요소의 작용은 개인 통제요소에 의해, 그리고 비행친구와 같은 주위 환경의 원인요소는 역시 주위 환경 통제요소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한 결과는 주로 현실비행에서 나타났고 인터넷비행의 경우도 나타났는데, 인터넷비행에서는 본 연구의 예측과 같이 주위 사람과의 유대의 통제작용은 미흡했었다. 휴대전화비행의 경우에서는 전체적으로 상호작용효과의 작용은 낮았는데, 다만 비행친구의 영향이 주위 유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결과만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앞으로 비행연구는 원인과 통제요소의 통합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울러 매체별로도 그 작용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상이한 점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매체에서의 비행현상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나 대응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상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매체의 경우 현실과 인터넷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조사 당시에는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매체에서의 비행 정도는 낮았지만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현재나 앞으로 그 현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아울러 새로운 융합매체의 등장으로 그 현상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는 바, 그 현상에 대한 설명과 대응책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들이 새롭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민수홍. 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12(2):1-25.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3(6):24-47.

성동규, 황성연, 임성원. 2007.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세계사.

이경님, 하연미. 2004.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비행과 관련변인간의 경로분석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5(5):127-143.

이성식. 2004. 청소년들의 긴장,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비행.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273-299.

이성식. 2006a.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한국청소년학연구 13(6):179-200.

이성식. 2006b. 사이버언어폭력의 원인과 방지대책. 형사정책 18(2):421-440.

이성식. 2008.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형사정책 20(1):187-206.

이성식, 김현준. 2009. 휴대전화 모바일비행의 원인으로서 비행자특성과 비행기회, 그 통합적 설명. 형사정책 21(1):241-262.

이재현. 2004. 모바일 미디어와 모바일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Agnew, R. & White, H.R. 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475-499.

Elliott, D.S., D. Huizinga, and S. Ageton. 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Sage.

Gibbs, J.P. 1975.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e. New York: Elsevior.

Gottfredson, M.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d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Grasmick, H.G, Tittle, C.R, Bursik, R.J. & Arneklev, B.K.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 of Gottfredson &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5-29.

Hay, C. & Forrest, W. 2008. Self-Control Theory and the Concept of Opportunity: The Case for a More Systematic Union. Criminology 46(4):1039-71.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owell, J.C. 2003. Preventing and Reducing Juvenile Delinquency: A Comprehensive Framework. Sage Publications.

Joinson, A.N. 2003.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Internet Behavior. Palgrave McMillian.

Mazaolle, P., V. Burton, F. Cullen, T.D. Evans, and P. Payne. 2000. Strain, Anger, and Delinquent Adaptations: Specifying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8:89-101.

Paternoster, R., Silverman, L. Chiricos, T.G. & Waldo, G.P. 1983. Perceived Risk and Social Control: Do Sanctions really Deter? Law and Society Review 17:457-479.

Piquero, N.L. & Sealock, M.D. 2000. Generalizing General Strain Theory: An Examination of an Offending Population. Justice Quarterly 17:449-84.

Pogarsky, G. 2002. Identifying Deterrable Offenders: Implications for Research on Deterrence. Justice Quarterly 19:431-453.

Pratt, T.C. & Cullen, T.F.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64.

Sampson, R.J., Raudenbush, S.W. & Earl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27:918-923.

Simons, R.L., C. Johnson, R.D. Conger, and G. Elder. 1998. A Test of Latent Trait versus Life-Course Perspectives on the Atability of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6:217-43.

War, M. & Stanfford, M. 1991.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 What They think or What They do?. Criminology 29: 851-866.

Testing both Risk and Control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in Offline, Internet, and Cell Phone Media

Lee, Seong-Sik*

This study constructs an integrated model considering both risk and control factors of delinquency and applies it to three types of delinquency across offline real, internet, and cell phone medi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low self-control, negative emotion, and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as risk factors, and moral belief, the perceived formal sanctions, and social bonds as control factors. This study tests not only their independent effects bu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risk and control factors. Using data from surveying 715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results show that low self-control and associations with delinquent pee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ll types of delinquency. Results also show that the effect of social bonds is significant in offline delinquency, the effect of the perceived formal sanctions is significant in cell phone delinquency, and the effect of moral belief is large in all types of delinquency. It is shown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low self-control and moral belief is significant and also reveals that the effect of associations with delinquent peers can be buffered by both the perceived formal sanction and social bonds. This results support an integrated model of delinquency but they reveal that the effects of each explanatory factor can be different across three types of delinquency.

❖ Key words : delinquency, integrated model, risk factors, control factors, media

투고일 : 2011. 02. 07 / 심사(수정)일 : 2011 .03. 08 / 게재확정일 : 2011. 03. 25

*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